

7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

?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참되게 알 수 있나?

하나님은 우리 머리로 다 담을 수 없는 분이지만, 스스로를 드러내셨기에 알 수 있다. 교회는 늘 불가해성을 고백했지만 근대 철학은 이를 불가지론으로 바꿔 신학을 위축시켰다. 바빙크는 불가해성이 오히려 계시로 얻는 참되고 비유적인 지식의 전제라고 말한다. 사람은 하나님을 알 능력을 갖고 태어났기에 진짜 무신론은 드물고, 신 존재 논증은 믿음을 돕는 증언이다. 성경은 온 창조세계에서 가져온 사람 말로 하나님을 부르며, 이 지식은 제한적이지만 참되고 믿을 만하다.

용어 먼저

불가해성	하나님을 사람의 머리로 다 담거나 정의할 수 없음
불가지론	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주장
유비적 지식	답음에 기대어 하나님을 아는 간접적이지만 참된 앎
신인동형론	사람의 몸·감정·말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방식
본유관념	태어날 때부터 완성된 지식이 들어 있다는 생각
심어진 지식	계시가 마음에 남기는 하나님에 대한 직관과 인상
모사적 지식	하나님의 자기지식을 본떠 피조물에게 주어진 앎

구조도 · 불가해성에서 참된 앎으로



핵심 주장

-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학의 전부이며, 이 앎은 예배로 이어지는 생명이다.
-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셨다는 사실이다.
- 성경은 하나님의 인격성과 절대성을 함께 가르친다.
- 불가해성은 불가지론이 아니라 계시로 얻는 참된 지식의 전제다.
- 사람은 하나님을 알 능력을 갖고 태어나지만, 내용은 계시와 양육으로 배운다.
- 참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결국 거짓 신을 만든다.
- 신 존재 논증은 수학적 증명이 아니라 이미 있는 믿음을 강화하는 증언이다.
- 우리 지식은 상징이 아니라 모사적·유비적이어서 제한적이지만 믿을 만하다.

성경 근거

요 17:3	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
롬 1:19-20	창조세계가 하나님의 존재와 신성을 보여 줌
사 57:15	높으신 하나님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심
마 11:27	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온전히 아는 자 없음
행 17:27-28	하나님은 공간 너머에 계시며 우리는 그 소생
시 14:1	하나님 없이 사는 실천적 무신론이 있음
사 40:26	성경은 증명 대신 창조주를 보라고 촉구함

오해 → 바른 이해

× 하나님은 알 수 없으니 말도 못 한다	✓ 알 수 없기에 더욱 계시에 기대어 참되게 안다
× 하나님 지식은 머릿속에 타고난다	✓ 알 능력은 타고나나 내용은 계시와 양육으로 얻는다
× 신 존재 증명이 믿음의 토대다	✓ 논증은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믿음을 돕는 증언이다
× 하나님 이름은 인간 감정의 투사일 뿐	✓ 하나님이 사람 말에 맞춰 스스로를 알리신 것이다

“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알리셨기에 우리의 앎은 참되다”

☞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머리 공부로만 여기지 않는가?

☞ 일상과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며 살고 있는가?

빛다방 학습 노트 · 헤르만 바빙크 『개혁파 교의학』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요약한 것입니다(원문 미전재).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.
[youtube.com/@빛다방](https://www.youtube.com/@빛다방)